

함께사는 삶 '좋은 아버지 되기 모임'

삶바쁜 아버지 자녀사랑법 공부

빨리 집에 돌아가기·대화시간 갖기 등

매월 1차례 '가족의 날' 선정, 가장의 빈자리 메워

"아이가 나눴셈을 물어보는데 차계산기만 켜져서인지 그 순간 푸는 방법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귀찮다는 표정을 고는 그냥 아이에게 내맡겨버려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해가 왜 빨간냐고 그날에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등줄기에 식은땀 흘러내린 것 같았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광주시 구 운암동 경양국교 교무실에 10여명의 아버지들이 둘러앉아 평소 집에서 자녀들과 얘기 주고받으며 겪은 곤혹스러운 기억들을 털어놓고 있었다. 사람씩 돌아가며 이야기할 때 다 모두들 귀를 기울이고 고개 끄덕이곤 했다. 이날 밤이 깊어지자 경험담 발표와 토의

끝에 이들은 교과서나 백과사전 따위를 열어보며 자녀들과 함께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올바른 대화법이라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모임'(종아회·회장 김용대)이 매달 셋째주 화요일이면 펼치는 좋은 아버지 역할교육 현장이다. 바쁜 사회생활에 쫓겨 어느새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거리감을 느끼게 된 광주 시내 6개 국교 학부모 20여명은 지난 6월17일 가정에서 제자리를 되찾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함께 사는 삶을 가꾸보자는 취지 아래 종아회를 만들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특히 핵가족화가 심해지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비중이 훨씬 커지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빈자리가 커져가고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은 갈수록 희미해져 자칫하면 자녀들을 그르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모임까지 만들게 됐다.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경양국교 윤순홍(40) 교사는 학생들의 어머니 1백20여명을 상대로 펴온 '부모역할교육'을 바깥일에만 매달려 있는 아버지들한테까지 넓혀야만 할 필요를 절감해 모임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제 갓 걸음마단계에 있는 종아회의 회원들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선언문'을 날마다 되새기고, 넷째주 토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해 △빨리 집에 돌아오기 △사

랑의 대화시간 갖기 등 쉽고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겨 몸에 배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데도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낀 이들은 '좋은 아버지 역할교육'을 마련해 자녀교육, 자신의 아버지 회고, 효과적인 자녀와의 대화법 등을 주제로 체험담 발표·강의·토의시간을 가져왔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사회생활을 핑계로 자녀에게 소홀했던 자신이 자녀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점을 깨친 것이다. 아들이 가져온 안내문을 보고 종아회에 가입했다는 윤영한(34·회사원)씨는 "8년 동안 회사생활에만 충실하면 아버지 구실을 다



"아빠, 힘내세요!" 종아회 회원들은 지난달 9일 전남 광양군 관광자연농원에서 '아버지-자녀동행모임'을 갖고 자녀들과 거리감을 좁혔다.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며 "모임에 나온 뒤 회사에서 한번이라도 더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강인구(35·상업)씨는 "전에는 회사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아이들이 조그만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곧바로 짜증을 내고 큰소리 치곤 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 속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아이들이 잘못해도 타이르려 애쓴다"고 털어놓았다.

종아회 회원들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지난달 9일 가족동반으로 전남 광양군에 있는 관광자연농원을 찾아가 '아버지-자녀 동행모임'을 갖고 자녀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회원 자녀들은 "일이 바빠다며 잘 놀아주지 않던 아빠가 종아회에 나간 뒤부터는 자주 같이 놀아줘 좋아요" "무관심했던 아빠가 문제집을 풀 때 함께 봐주시기도 해요"라며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을 한결같이 자랑스러워했다.

이제는 식구가 33명으로 늘어난 종아회에도 고충이 없지는 않다. 자발적 모임이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사무실 마련이나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추진하기가 아직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시각을 돌려놓는 놀라운 효과로 인해 이 모임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믿는다"며 "더 많은 아버지들이 함께 참여하고, 비슷한 모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이수범 기자〉